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현황 및 추이
엔데믹 시대 플랫폼업체의 실적부진과 대응전략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현황 및 추이	1
엔데믹 시대 플랫폼업체의 실적부진과 대응전략	4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6
--------------------	---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현황 및 추이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최현희 (choikoex@kdb.co.kr)

-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1.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조사대상 43개국 중 각각 4위, 16위 수준
- ◆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으므로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상환능력 변화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모두 GDP를 상회하며,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함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1.3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106.7%)과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113.7%)은 조사대상 43개국 중 각각 4위, 16위 수준임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 상위국가('21.3분기)

순위	가계부채(a)		기업부채(b)		민간부채(a+b)	
	국가명	부채/GDP(%)	국가명	부채/GDP(%)	국가명	부채/GDP(%)
1	스위스	131.0	룩셈부르크	319.1	룩셈부르크	407.8
2	오스트리아	119.3	홍콩	287.8	홍콩	384.0
3	캐나다	108.8	스웨덴	179.7	스웨덴	269.1
4	한국	106.7	싱가폴	168.9	스위스	265.5
5	덴마크	106.2	아일랜드	165.8	노르웨이	261.5
6	노르웨이	105.7	프랑스	164.0	네덜란드	251.9
7	네덜란드	102.2	중국	155.5	캐나다	240.5
8	뉴질랜드	98.1	네덜란드	148.5	덴마크	238.5
9	스웨덴	94.4	벨기에	146.9	프랑스	237.9
10	홍콩	92.4	스위스	143.0	싱가폴	234.7
11	태국	90.2	노르웨이	141.1	중국	222.4
12	영국	87.7	덴마크	131.0	벨기에	218.7
13	미국	78.5	캐나다	124.5	한국	217.0
14	말레이시아	73.6	핀란드	119.8	아일랜드	212.9
15	핀란드	69.1	일본	115.7	핀란드	192.6
16	포르투갈	69.0	한국	113.7	오스트리아	190.9
17	프랑스	67.3	칠레	108.6	일본	182.7
18	일본	66.9	스페인	105.0	태국	175.7
19	룩셈부르크	66.9	포르투갈	104.6	포르투갈	175.2
20	벨기에	63.3	오스트리아	99.5	뉴질랜드	174.9

자료 : BIS, Credit Statistics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기업부채비율은 모두 G20국가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가계부채비율은 G20국가 평균(65.1%)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

지역별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

가계부채(a)		기업부채(b)		민간부채(a+b)	
지역	부채/GDP(%)	국가명	부채/GDP(%)	국가명	부채/GDP(%)
G20	65.1	G20	101.0	G20	166.1
유로지역	60.9	유로지역	110.8	유로지역	171.7
이머징마켓	51.0	이머징마켓	112.5	이머징마켓	163.5
한국	106.7	한국	113.7	한국	217.0

자료 : BIS, Credit Statistics

□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

-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17-'21.3분기)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 폭은 조사대상 43개국 중에서 가계부채 2위, 기업부채 5위 수준

* '17-'21.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9.4% ↑,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 4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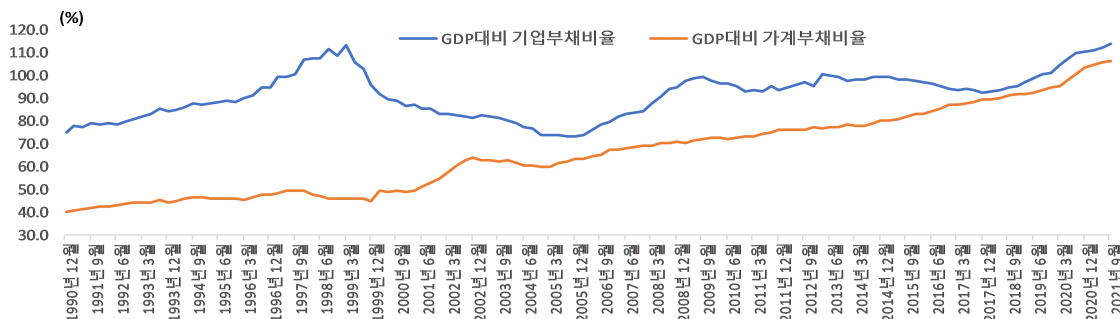
최근 5년('17-'21.3분기)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 증가율 상위국가

순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			
	국가	'16년 (a)	'21.3Q (b)	증가폭 (b-a)	국가	'16년 (a)	'21.3Q (b)	증가폭 (b-a)
1	홍콩	67.6	92.4	24.8	홍콩	464.1	378.9	85.2
2	한국	87.3	106.7	19.4	싱가폴	379.4	308.2	71.2
3	중국	44.2	61.6	17.4	일본	416.8	366.8	50.0
4	태국	79.9	90.2	10.3	프랑스	361.1	311.8	49.3
5	프랑스	57.1	67.3	10.2	한국	266.3	219.4	46.9
6	스위스	122.4	131.0	8.6	태국	229.7	187.5	42.2
7	스웨덴	85.9	94.4	8.5	캐나다	342.8	303.5	39.3
8	일본	59.8	66.9	7.1	그리스	340.8	303.4	37.4
9	러시아	15.6	22.0	6.4	스위스	303.8	268.3	35.5
10	브라질	30.8	36.6	5.8	사우디아라비아	116.3	81.6	34.7

자료 : BIS, Credit Statistics

-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여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 (113.7%)은 외환위기인 '99년(113.5%) 이후 가장 높음

우리나라의 GDP대비 민간부채비율 추이('90-'21.3분기)



자료 : BIS, Credit Statistics

□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능력 변화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

- '21.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BIS기준)은 12.6%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부채비율 상위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 * DSR(Debt Service Ratio) :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
- '21.3분기 우리나라 기업부문의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증가폭(+5.2%)은 큰 편임
 - * '17-'21.3분기 우리나라 기업부채 DSR 증가 폭 : 5.2% (조사대상 17개국 중 3위)
-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저금리 환경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상환능력의 변화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 있음
 - 고위험가구, 취약기업 등 취약차주의 부실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 고위험가구 : DSR(한국기준)이 40%를 초과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이 100을 초과하는 가구 (BIS 기준 DSR과 국내은행들이 적용하는 DSR은 산출방식이 상이)
 - ** 고위험가구 수('21년) : 38.1만 가구, 전체가구 수 대비 3.2%
 - *** 취약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취약상태의 지속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과반이상(50.9%, '20년)이 취약기업에 해당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DSR 상위국가('21.3분기)

순위	국가명	DSR(%)	국가명	DSR(%)
1	네덜란드	14	프랑스	58.7
2	덴마크	13.8	캐나다	52.8
3	오스트리아	13.6	스웨덴	51.0
4	노르웨이	13.4	노르웨이	50.7
5	캐나다	12.6	포르투갈	47.5
6	한국	12.6	네덜란드	43.5
7	스웨덴	12.2	벨기에	42.4
8	영국	8.8	미국	40.4
9	미국	7.5	한국	40.3
10	벨기에	7.4	스페인	40.2

자료 : BIS, Credit Statistics

엔데믹시대 플랫폼업체의 실적부진과 대응전략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신유영 (shinyy@kdb.co.kr)

- ◆ 팬데믹으로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 전환하며 일부 플랫폼업체들이 급성장하게 되었으나, 최근 팬데믹 종료, 엔데믹 시대의 시작과 함께 온라인 수요가 감소하며 실적 악화 중
- ◆ 이에 플랫폼업체들은 오프라인 진출, 콘텐츠 다양화 등 기존 서비스에서 벗어난 과감한 전략수정을 통해 엔데믹 시대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

□ 지난 2년여간의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세계 디지털화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급성장

-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여가 및 업무 등이 생활에 빠르게 침투하였으며, 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맞이함. 이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부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호황을 맞이하며 급성장함
 - 특히 게임, OTT(온라인동영상), 비대면 화상회의,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등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팬데믹 수혜로 빠르게 성장
 - 반면 여행, 숙박, 모빌리티 등 오프라인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업체들은 실적 악화

팬데믹 기간 급성장한 주요 글로벌 플랫폼 업체

업체명	내용
줌(Zoom)	· 글로벌 화상회의 서비스 플랫폼 · '21년 매출 26억5,140만 달러(전년대비 326% ↑) 달성 등 재택근무 도입한 대기업 고객수요 폭증으로 팬데믹 특수 누림
넷플릭스(Netflix)	· 글로벌 OTT 서비스 플랫폼 · '20년 3분기 기준 한해 유료 가입자 수 2,810만명으로, '19년 전체 유료 가입자 수인 2,790만명을 앞지르며 팬데믹 기간 급성장
로블록스(Roblox)	· 메타버스 기반 게임 서비스 플랫폼 · 코로나 기간 총매출 200% 급증, '21년 상장 후 주가 급등('21.3월 U\$64.50 → '21.11월 U\$134)

자료 : 각사 자료 및 언론 보도 종합 재구성

□ 엔데믹*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는 해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기반 플랫폼업체들의 코로나19 매출특수 반환 중

- * 엔데믹(Endemic): 어떤 질병이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감염병과 관련하여 백신이 개발되고 치명률이 낮아짐에 따라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컫음

- '22년 상반기 주요 글로벌 플랫폼업체 저조한 실적발표와 함께 주가 하락 중
 - '21.5월 중, 넷플릭스, 로블록스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업체 주가는 팬데믹 기간 내 최고점 대비 약 70%~80% 하락한 상태
 - 국내 서비스 플랫폼업체들의 앱 MAU*도 거리두기 해제 이후 최대 17% 감소
- * MAU(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성 이용자 수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감소한 것이 하락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며, 팬데믹 종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팬데믹 기간 주요 글로벌 플랫폼업체 주가 추이 최근 주요 국내 서비스 플랫폼업체 MAU 추이



자료 : Bloomberg, CDC

구분	플랫폼 명	증감율*
게임·메타버스	제페토	-10%
	로블록스	-11%
OTT 서비스	넷플릭스	-9%
	웨이브	-15%
음식배달	배달의민족	-5%
	요기요	-13%
인테리어	오늘의집	-14%
화상회의	줌	-17%

* '22.3월 첫 주 대비 거리두기 전면 해제된 4월 마지막 주 MAU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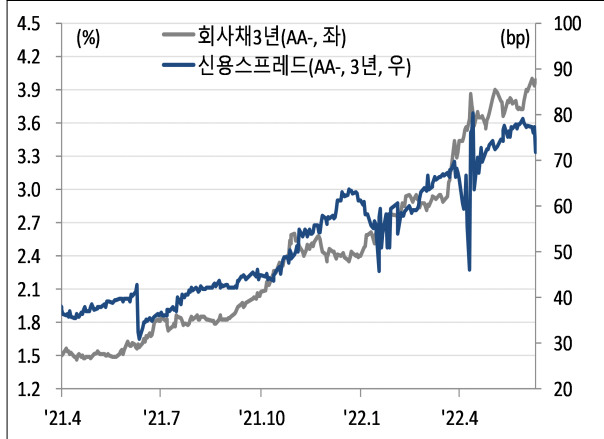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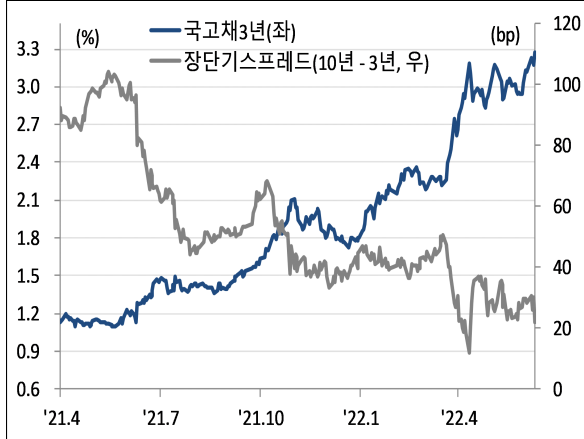
자료 : 매일경제(2022.5.8.), "플랫폼 "집밖서 돈벌자"...넷플 공연사업, 오늘의집 이사중개"

□ 엔데믹을 맞이하여 플랫폼업체는 오프라인 진출, 콘텐츠 다양화 등 실적 부진을 타개할 적극적 전략수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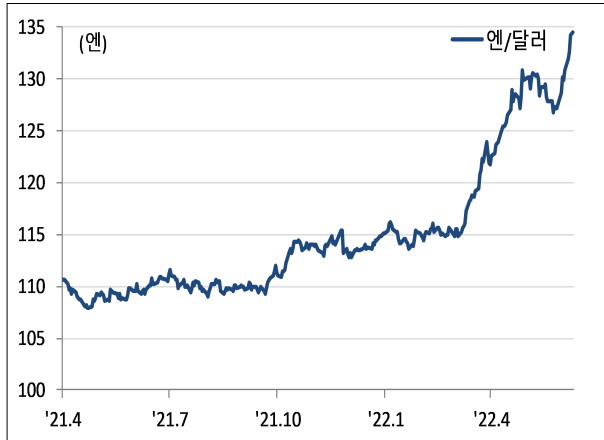
- 최근 플랫폼업체들은 밖에서 활동하려는 고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대응 방법 모색 중
 - 머스트잇(온라인 쇼핑), 하우스텝(온라인 인테리어시공)은 오프라인 쇼룸 오픈, 당근마켓(온라인 중고거래)은 동네 기반 커뮤니티, 채팅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지역 기반 오프라인 모임을 독려
 - 티빙, 애플TV, 쿠팡플레이(OTT서비스)등은 UFC(종합격투기), 미국프로야구, K리그(축구) 등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 시도
- 팬데믹 초기 디지털 전환에 뒤쳐져 실적 부진을 경험했던 일부 전통산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업체들의 발 빠르고 과감한 전략 전환이 필요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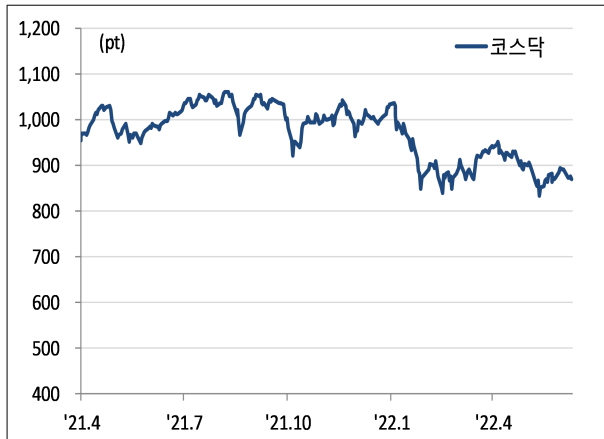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3.275% (15.4bp ↑), 신용스프레드 71.9bp (5.7bp ↓)



환율 원/달러 1,268.9원 (26.2원 ↑), 엔/달러 134.43엔 (2.56엔 ↑)



주가 코스피 2,595.87pt (2.8% ↓), 코스닥지수 869.86pt (2.43%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81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